농진청,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 등 이달의 신간 4권 출간

농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 책 한권에 있다

'강소농&자율모임체 우수사례집', 강소농 육성 참고자료 활용토록 기획

'최고품질 농산물 우수 생산단지 모음집', 생산단지 판로 개척 등 위해 제작

'믿고 찾는 농촌 교육농장', 최근 2년동안 품질인증 받은 교육농장 소개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 날리는 농약 줄이기 위한 방법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한해를 마감하면서 '강소농&자율모임체 우수사례집', '최고품질 농산물 우수 생산단지 모음집', '믿고 찾는 농촌 교육농장',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 등 이달의 신간 4권을 출간했다.

올해 개최한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과 단체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소개책자인 '강소농&자율모임체 우수사례집'은 지역별로 추진한 강소농 육성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강소농 담당자들이 강소농 육성과 지도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수록된 내용은 △우수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의 현황소개 △강소농 육성의 핵심내용인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향상, 역량개발 등 주요 요소별 활동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요성과 등이다.

책자는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기관에 배부하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누리집에서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선정한 원예(채소·과수)분야의 최고품질 농산물 우수 생산단지를 소개한 '최고품질 농산물 우수 생산단지 모음집'은 각 생산단지의 판로 개척 및 확보 지원을 위해 제작됐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유통업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모음집에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류 생산단지 29개소와 마늘, 딸기 수박 등 채소류 생산단지 22개소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거래를 희망하는 유통 관계자들을 위해 생산단지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했다.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서 피디에프(PDF)파일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믿고 찾는 농촌교육농장'이라는 책자는 최근 2년간 품질인증을 받은 농촌교육농장 가운데 가볼만한 농촌교육농장을 소개하고 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은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지속적인 농장 방문을 위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만 부여한다.

책자는 해당농장에 대한 기본정보는 물론 농장에서 운영하는 대표 교육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응급처치교육 이수 여부, 배상보험 가입 유무, 안전·위생관리 수준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 책자

발간된 책자는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부하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누리집에서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무인항공기로 농약을 뿌릴 때 농약이 날려 주변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간한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농약이 날리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농업 현장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항공살포 준비단계부터 살포 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사용자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은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책자는 세계작물보호산업협회(CropLife International) 아시아 지부인 CropLife Asia (CLA)와 한국작물보호협회를 통해 영문으로 번역 후 아시아 국가에 배포해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활용할 예정이다.

책 내용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아시아-환태평양 농약살포용 드론 관련 포럼(Asia-Pacific (APAC) Drone Pesticide Application Forum)에서 우리나라 농약살포용 드론 연구현황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책자는 농촌진흥기관, 농협, 농약회사, 영농법인, 방제업체 등에 배포하고, 소책자로도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피디에프(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 이임 앞두고 '사랑의 쌀' 전달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은 28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쌀 10kg 350포(1000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전북농협 본부장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 본부장은 취임 이후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농업·농촌·농민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면서 전북농협의 모든 역량을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 ▲86개 농축협의 종합컨설팅을 실시 ▲지자체협력사업 전년대비 30% 증가 ▲임직원 일손돕기 등 적기 농촌인력 지원 ▲서민금융 지원 강화 ▲농산물 연합사업 매출액 4천억 달성 ▲전북쌀 광역브랜드 '예담채 십리향米' 시장 진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내년 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는 박성일 본부장은 "이번 사랑의 쌀 전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견디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더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여권 금융거래, 더 편리해진다

전북은행, 진위확인서비스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은행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여권 진위확인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면거래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 적용해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고객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新여권도 외교부의 여권 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불편 없이 실명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은행 서한국 부행장은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그린뉴딜 실현 방안 논의'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조성, 친환경 농업 활성화 등 새만금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인식 사장과 소관이사, 부서장이 참석한 이날 대담에는 안호영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 위원장)이 함께 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권오정 신임 농협 남원시지부장 부임

농협 남원시지부 신임 지부장에 권오정(53)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 부지부장이 임명되어 2021년 1월 1일 부임할 에정이다.

권 부지부장은 1968년생으로 남원고와 전북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입사 이후 농업금융부, 남원시 농정지원단장, 전북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 및 경영기획단장을 역임하고, 2018년 농림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신임 권 부지부장은 취임에 앞서 "뜻 깊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남원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앞장서는 남원시지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유통혁신에 앞장서고, 지역과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서 경쟁력 있는 농업·잘사는 농업인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하이트진로, 진로 페트 새롭게 출시

400ml · 640ml 가정용 2종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진로 페트를 새롭게 출시하며 가정 시장 확대, 강화에 나선다.

이번에 출시하는 페트는 400㎖, 640㎖ 용량의 가정용 제품2종이다. 코로나 이슈, 홈술 트렌드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출시하게 됐다.

페트 소주는 휴대성과 편의성이 좋은 가운데, 특히, 640㎖페트는 페트 시장 내에서도 가장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400㎖페트 또한 저용량 인기제품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처음 선보이는 진로 페트의 패키지는 기존 병의 형태와 볼륨감을 그대로 살려 병 소주를 마시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벨과 뚜껑 역시 스카이블루 컬러를 적용해, 눈에 잘 띄며 패키지의 매력도를 한껏 높였다.

지난 10월, 하이트진로는 가정에서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160㎖의 진로 미니 팩소주를 출시해 출시 한 달만에 100만팩 판매를 돌파했다.

또, 지난7일에는 배달,포장용 시장을 고려해 진로 미니 팩소주 유흥용 제품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니즈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주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진로 페트는 금주부터 전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진로 페트의 출고가는 1,208.9원(400㎖), 2,027.33원(640㎖)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코로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음주트렌드에 맞춰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더 쉽게 즐길 수 있는핵심 라인업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기업으로서 다양성을 가진최고의 제품으로 주류 문화를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북대병원, 방역시스템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대하는 한편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28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의 부족사태를 대비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2개 병상에서 11개 병상으로 확대해 지난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확대운영이 일반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인력 재배치와 효율적인 운용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는 물론 입원 일반 중환자와 응급환자 치료, 중증환자 수술 등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기존의 방역시스템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따라서 입원환자는 물론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입원실과 응급실에 내원 보호자에 대해서도 무증상자 1인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된다. /김윤상 기자

11월 전북 수출 5억2785만 달러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3개월 연속 수출액 5억 달러 넘어

전북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한 5억 2785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3개월 연속 5억 달러를 넘고 있고,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한 일 기준으로는 오히려 소폭(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이 28일 발표한 '2020년 11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5억 2785만 달러, 수입은 3억8,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4억 달러대에 그치던 월 수출액이 9월부터 3개월 연속 5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조업일 기준의 일 수출액도 3개월 연속 2,000만 달러를 넘고 있다.

품목별로는 동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으로 나타났다. 동제품은 전년 대비 56.2% 늘어난 4,418만 달러 수출되었다. 뒤를 이어 합성수지($ 4,202만, 15.9%), 건설광산기계($ 3,605만, 34.9%), 인조섬유($ 2,350만, 35.2%), 선재봉강철근($ 2,337만, 48.4%)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정밀화학원료($ 4,094만, -41.3%), 자동차($ 3,828만, -18.2%), 농기계($ 2,195만, -1.2%), 자동차부품($ 2,241만, -2.8%)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1억2,038만, -10.4%), 일본($ 3,773만, -3.8%), 베트남($ 2,626만, -55.7%)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최대 시장인 미국($ 7,450만, 4.5%), 폴란드($ 2,168만, 152.7%), 태국($ 1,844만, 12.1%), 인도네시아($ 1,422만, 28.0%), 벨기에($1094만, 82.3%) 등으로는 증가했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올해 수출 부진의 원인은 주력수출업종의 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며, "OCI 가동중단에 따른 수출감소분의 기저효과가 감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도 회복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김윤상 기자

하림, '미닝아웃족' 위한 동물복지 닭고기 제품 추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신념과 윤리적 가치에 맞게 소비하는 '미닝아웃족'이 늘고 있다.

소신있는 소비를 하는 MZ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한 만큼, 가치지향적 소비문화는 내년에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동물의 습성 그대로자유롭게 키워 더 건강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 제품을 추천했다.

'하림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닭고기의 가슴살을 4~5㎝ 한 입 크기로자른 후, 영하 35℃ 이하에서 40분간 개별 급속 동결하는 IFF(Individual FreshFrozen) 기법으로 신선한 육질과 촉촉한 식감을 살린 제품이다.

연말연시 집에서도 근사한 연말 분위기를 내고싶다면 '하림 자연실록 IFF 치킨스테이크'를 활용하면 좋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읍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발견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만3,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의 발표에 따르면,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오리농장에 대해 도축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등과 함께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 중이다. /김윤상 기자